

#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노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23년 들어 세간의 관심과 염려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2년 말에 발표된 생성형 AI 챗GPT의 성능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AI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는 지경이다. 인터넷이 도입될 때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세상이 열릴 때, 산업계의 판도가 뒤바뀌는 것을 지켜본 바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이 그 때와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I로 인해 사업의 내용이 바뀌든 사업운영 방식이 달라지든 간에 노동은 그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

인공지능의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상(像)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현상을 인식하고 추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인간 의지의 결과물이다. 규칙기반(rule-based)의 알고리즘으로 수십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을 적용하면서 획기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모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Webb, 2020).

“인간처럼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인식이란 은유적 표현이며, 실제로 컴퓨터가 하는 일은 “구별” 또는 “분류”다. 컴퓨터는 숫자를 구별하는 데는 예전부터 탁월한 성능을 보였으나, 이미 지나 언어적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딥러닝 모델, 텍스트를 수치(벡터)

로 변환하는 기술, 데이터를 병렬처리하는 GPU 개발 등 여러 가지 기술혁신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오늘날 AI는 숫자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포함한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와 음성을 포함한 자연어(natural language)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것은 데이터 간에 차이를 구별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특정 유형의 학습데이터와 비슷한 결과물을 생성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생성 AI).

AI의 이런 기능은 맞춤형 광고나 상품 추천, 프로그램에서 오류 찾기 등에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와 이미지 생성, 챗봇 등에 활용되었다. 최근에 발전된 AI는 더욱 길고 복잡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와 언어의 결합도 유연해졌다.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대응하고,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결과물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국제노동브리프 이번 호에서 AI에게 노동에 관해 질문하고 얻은 대답은 오늘날 AI의 발전 수준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수행하던 일의 일부분을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AI가 인간이 하던 일의 일부를 대체할 것은 분명하고 심지어 어떤 일을 대체할 것인지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우리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자리의 규모와 분포 변화이다.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 고용 규모 전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성 변화다. 고용형태별, 임금수준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불평등은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의 구성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초래하는 숙련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 적응은 변화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AI가 인사관리와 노동과정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다. 인간이 AI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노동강도 강화나 차별적 처우에 대비하는 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 실린 Marguerita Lane과 Stephanie A. Bell의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현재 시점의 대답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상황을 주

시하고 대응책을 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KLI**